시계절 양질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파격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김형태 1타차 살얼음판 선두

## 금강산 아난티 NH농협 골프 2R 마쳐

김형태(30·테일러메이드)가 SBS코리안투어 금강산 아난티 NH농협 오픈골프대회 2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다.

김형태는 26일 북한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아난티 골프코스(파72·7천630야드)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중간합계 3언더파 141타가 됐다. 2위 김상기(23·삼화저축은행)와는 1타 차로 아직 우승자를 점치기 힘든 수준이다.

1번 홀(파4)에서 출발한 김형태는 첫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5번 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6번 홀(파5) 버디로 곧바로 이를 만회했고 9번 홀(파4), 11번 홀(파3)에서 연달아 버디를 낚아 선두로 치고 나갔다. 929m 길이의 12번 홀(파6)에서 보기로 한 타를 잃었으나 선두를 지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해 하나투어 몽베르투어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김형태는 이로써 시즌 첫 우승, 통산 2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2언더파 142타로 단독 2위에 오른 김상기는 이날 버디 4개를 쳤지만 보기 1개와 더블보기 1개도 범해 이날 1타를 줄이는 데 그쳤다.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나섰던 신인 방두환(20·클리블랜드)은 2타를 잃어 중간합계 1언더파 143타로 공동 3위로 내려앉았다.

방두환과 함께 공영준(48·한화제약), 최호성(34·삼화저축은행)등 3명이 공동 3위를 달렸다. 출전 선수 60명 가운데 5명만이 언더파 스코어를 냈고 이븐파가 5명, 나머지 50명은 오버파에 그쳤다.

상금랭킹 2위를 달리며 2년 연속 상금왕에 도전하는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은 이날만 5타를 잃어 중간합계 5오버파 149타로 공동 26위까지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그린→정착지, 나이스 샷→잘 친공

## 아난티 NH농협오픈 北 골프용어 눈길

"선생님 치신 공은 정착지에 안착했습네다"

스포츠용어도 가능한 우리말로 바꿔 부르는 북한 땅에서 최초로 열리는 한국프로골프(KPGA) 금강산 아난티 NH농협오픈을 맞아 북한의 골프 용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 골프가 생소한 스포츠다. 대회를 주최한 에머슨퍼시픽그룹 이중명 회장이 "북측 사람들이 와서 골프 치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아직은 '왜 저렇게 조그만 공들을 서로 치려고 난리들인가' 하는 정도로만 보는 것 같다"고 소개했을 정도다.

그래도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골프용어가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은 그린을 뜻하는 '정착지'다. 따라서 "정착지에 안착했다"는 말은 "그린에 공이 올라갔다"는 뜻이 된다. 아이언은 '쇠채'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롱아이언은 '긴 쇠채'라고 한다. 우드는 '나무채', 드라이버는 '제일 긴 나무채'가 된다. 흔히 '굿샷, 나이스샷'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 친공'이 되고 티는 '못', 페어웨이는 '잔디구역'으로 부른다.

벙커는 '방해물' 또는 '모래웅덩이'고 파3 홀은 '짧은 거리', 파4 홀은 '중간 거리'다. 홀은 예상대로 '구멍'이라고 하고 해저드는 '방해물', 워터해저드는 '물방해물'로 칭한다. 버디나 보기 등은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 그대로 부르고 파의 경우 보다 세게 '빠'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나상욱 톱10 "예감이 좋다"

## PGA 긴 쉬메르 1R 공동 5위

넉달이 다 되도록 '톱10' 입상이 없는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모처럼 상위권 입상을 바라보게 됐다.

나상욱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루시의 테소로골프장(파73·7천381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긴 쉬메르 클래식 1라운드에서 5언더파 68타를 쳐 공동5위에 올랐다.

지난 6월 트레블러스챔피언십에서 공동9위를 차지한 이후 13개 대회에서 한번도 '톱10'에 들지 못해 상금랭킹이 116위(82만5천394달러)까지 떨어진 나상욱이 그동안 부진을 털어낼 기회를 잡은 셈.

1번홀(파4)에서 두번째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는 행운의 이글을 잡아낸 나상욱은 6개의 버디를 뽑아내는 빼어난 플레이를 펼쳤다.

12번홀(파3)에서 한꺼번에 3타를 잃는 실수가 옥에 티였다.

함께 출전한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16번홀까지 버디 5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3언더파를 때리며 공동18위를 달렸다.

봅 에스테스, 토미 아머3세(이상 미국)가 9언더파 64타로 공동선두를 달린 가운데 크레이그 캐나다(미국), 다니엘 초프라(스웨덴) 등이 6언더파 67타를 쳐 공동3위로 추격했다.

한편 대회는 기상이 나빠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다 20여명의 선수들이 18홀을 마저 돌지 못한 채 순연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스포츠중계

27일(토)

▲2007 PGA 긴 쉬르 메르 클래식 2R(04 : 00·SBS골프·SBS스포츠)

▲2007 삼성증권배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단식 준결승(12 : 00·KBS N SPORTS) 복식 준결승(14 : 00·KBS N SPORTS)

▲2007 SBS코리안투어 금강산 아난티 NH 농협 오픈 3R(14 : 00·SBS골프)

▲2007 LPGA 혼다 LPGA 타일랜드 3R(16 : 30·SBS골프)

▲2007 일본프로야구 일본시리즈 1차전〈니혼햄 : 주니치〉(17 : 50·SBS스포츠)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 : 미들스브로〉(23 : 00·MBC ESPN)

28일(일)

▲2007 PGA 긴 쉬르 메르 클래식 3R(04 : 00·SBS골프)(05 : 00·SBS스포츠)

▲2007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콜로라도 : 보스턴〉(08 : 50·Xports)

▲2007 삼성증권배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결승전(12 : 30·KBS N S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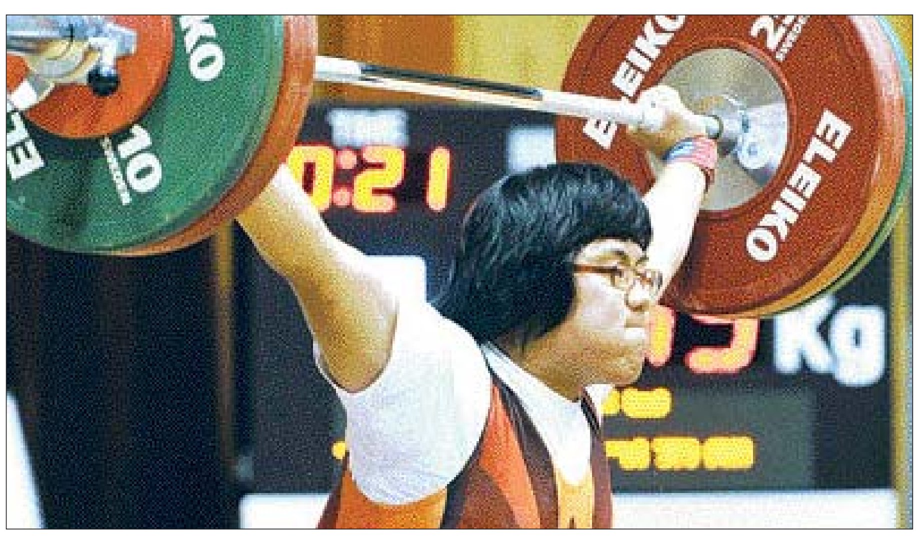
▲2007 K-리그 준플레이오프〈울산 : 포항〉(14 : 45·KBS N SPORTS)

▲2007 SBS코리안투어 금강산 아난티 NH 농협 오픈 FR(14 : 00·SBS골프)

▲2007 LPGA 혼다 LPGA 타일랜드 FR(16 : 00·SBS골프)

▲2007 일본프로야구 일본시리즈 2차전〈니혼햄 : 주니치〉(17 : 50·SBS스포츠)

▲07/08 세리에 A〈라치오 : 우디네세〉(23 : 00·Xports)



# 광주체고 이애라 등 6명 출전

## 아시아 남녀 주니어역도선수권

대한역도연맹은 27일 요르단 암만에서 개막하는 2007 아시아 남녀 주니어선수권대회에 역도 기대주 6명을 파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동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는 62kg급에 출전하는 이창호(20·한국체대)를 비롯한 남자 4명과 윤샛별(20·고양시청), 이애라(17·광주체고·**사진**) 등 여자 2명이 포함돼 있다. 한국 선수 중에는 이창호와 윤샛별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림픽 챔피언 전병관의 뒤를 이을 경량급 기대주 가운데 하나인 이창호는 지난 해 같은 대회 남자부 62kg급 용상에서 148kg을 들어올려 우승을 차지했다. 윤샛별도 지난 6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 나가 여자부 69kg급에서 인상 88kg 용상 118kg 합계 206kg을 들어 4위에 오르며 희망을 보여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IA 조직개편 단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6일 내년 시즌 재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단행했다.

종전 홍보팀과 경영관리팀, 마케팅팀, 스카우트팀, 전력분석팀 등 6개 조직을 홍보팀과 지원팀, 마케팅팀, 운영팀 등 4개 팀으로 축소했다.

경영관리팀은 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꿨고 스카우트팀과 전력분석팀을 운영팀에 흡수통합한 것.

KIA는 새롭게 개편한 조직에 맞춰 지원팀장에 류정철 과장, 운영팀장에 김명근 차장, 홍보팀장에 노대권 과장을 각각 임명했고 김경욱 마케팅팀장은 유임됐다.

KIA는 앞서 단장을 교체하고 새 사령탑에 조범현 배터리 코치를 승격시키는 등 선수단을 정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한국시리즈 과열… 감정싸움 치닫나

## SK-두산 '빈볼 시비'로 패싸움 벌여

## 감독들도 우승 집착 불쾌감 드러내

SK-두산이 맞붙고 있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선의의 경쟁을 넘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몸쪽 위협구와 빈볼의 모호한 경계선을 둘러싸고 양팀 간 감정싸움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23일 문학구장에서 벌어진 2차전에서 김동주와 채병용이 한 차례 빈볼 여부로 대치전을 치르더니 급기야 25일 잠실 3차전에서는 이혜천과 김재현의 빈볼 시비가 떼거리 패싸움을 촉발했다. 이혜천의 퇴장으로 경기가 재개되긴 했으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앙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김성근 SK 감독과 김경문 두산 감독은 빈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거친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김성근 감독은 3차전 승리 후 "어차피 승부라는 게 신경전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면서도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를 자극하는 일이 많다"며 두산을 겨냥했다.

2차전에서 채병용의 공에 안경현이 오른손을 맞아 남은 경기 출장이 어려워진 두산의 김경문 감독도 격앙되기는 마찬가지.

그는 "4년간 감독하면서 3차전이 최악의 경기였다. 빈볼 여부는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팀 최고참 타자가 당하지 않았는가. 벤치에서 보는 나도 참 마음이 안 좋았다"며 SK 투수들의 연이은 몸쪽 승부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경문 감독은 3차전 직후 선수단 미팅에서 빈볼 여부를 떠나 오로지 실력으로 SK를 제압하자며 선수들을 독려했는데 '조용한 설득'이 격앙된 선수단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특히 두 경기 연속 집단 몸싸움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김동주를 진정시키느냐가 관건이다. 2차전에서 위협구 직접 당사자였던 김동주는 3차전에서는 빈볼과 전혀 무관했음에도 불구, 동기생 김재현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고 방망이질로 분을 이기지 못하는 추태를 보여 팬들을 실망시켰다.

백전노장 김성근 SK 감독과 패기의 김경문 두산 감독은 이번 한국시리즈가 각각 두 번째 경험이고 반드시 첫 우승을 일궈내겠다는 욕망이 강하다.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듯 김성근 감독은 시즌 중 두산 다니엘 리오스 부정 투구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김경문 두산 감독도 SK 투수들의 빈볼 문제에 대해 결례임에도 SK 포수 박경완에게 직접 따지는 등 신경전을 펼쳐왔다.

양팀 모두 일부 베테랑을 제외하곤 대부분 큰 경기 경험이 적어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팽배,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 주는 대치전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가을 잔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 양팀이 참을 인(忍)자를 새기고 깨끗한 매너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점프 드리블은 이렇게** 26일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2007-2008 유럽축구연맹컵 조별리그 G조 1차전 토트넘과 헤타페의 경기. 헤타페의 공격수가 토트넘의 수비수들을 제치고 점프하며 드리블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천수 내일 첫 골 사냥 나선다

## 네덜란드 페예노르트, 트웬테전 선발 출격

페예노르트 데뷔전을 통해 단숨에 공격의 핵심전력으로 인정받은 이천수(26)가 이번에는 첫 골 사냥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이천수는 28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3시 네덜란드 엔스헤데 아르케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2007-2008 네덜란드 프로축구 정규리그 9차전 FC 트웬테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첫 선발출전과 데뷔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1일 엑셀시오르전에서 후반 15분 투입돼 좌우 측면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팀 공격을 살려냈던 이천수는 30여 분의 활약만으로 네덜란드 언론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함께 호흡을 맞췄던 공격수 로이 마카이는 이천수에 대해 "느낌이 좋다.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베르트 판 마르웨이크 감독은 "이천수 투입으로 분위기가 반전돼 팀 공격이 살아났다"고 칭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설기현(풀럼)과 이동국(미들즈브러)은 27일 오후 11시 치러지는 정규리그 11라운드를 앞두고 정규리그 첫 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설기현이 뛰고 있는 풀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에서 단 1승 밖에 거두지 못한 채 1승5무4패(승점 8)의 부진을 보이며 리그 13위로 처져있다. 이적 이후 도움 1개만 기록하고 있는 설기현은 이번 시즌 단 두 차례 선발출전에 그쳐 팀 내 주전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덜랜드와 원정 경기에서 골을 터트리는 게 시급하다.

이동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리그 17위로 강등권에 근접한 미들즈브러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여전히 이동국에게 신뢰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골 없는 공격수'에게 관용을 베풀지는 장담할 수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커트 실링-로웰 '승리 합작'

## 보스턴, 월드시리즈 2연승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시리즈에서 2연승으로 정상 등극에 한발짝 다가섰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보스턴은 26일(이하 한국시간)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2차전에서 베테랑 투수 커트 실링의 역투와 강타자 마이크 로웰의 활약에 힘입어 내셔널리그 챔피언 콜로라도에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보스턴은 전날 13-1 대승에 이어 이틀 연속 웃으면서 통산 7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2승을 남겨놓게 됐다.

보스턴은 지난 1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결정전 5차전부터 파죽의 5연승을 달렸고 '기적의 팀' 콜로라도는 지난 달 14~16일 3연패 이후 40일 만에 연패의 쓴맛을 봤다. '가을 사나이' 실링은 5⅓ 이닝 동안 탈삼진 4개를 곁들여 4피안타, 2볼넷, 1실점으로 호투해 포스트시즌에서 개인 통산 11승(2패)을 수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